


공동체 소식



삼위일체 대축일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 + 마이클 모렌, 이영민 엘리사벳 가정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234항: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이다. 이는 "신앙 진리들의 서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다. "구원의 역사[救世史]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시려는 길과 방법의 역사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총구역회 모임

- 일시: 오늘 (5.22) 미사 후.

주일학교 방학

- 내용: 주일학교를 지도해주신 교사들과 수업에 함께 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엎디어 절하나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려려 뵈옵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 옵니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중에서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81	513	504	8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예진 한나	안광민 야고보
	정예찬 미카엘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채린 소피아엘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차주	최은미 아네스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주	김화년, 안현숙, 정명숙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15	60명	331불	1,100불
차호섭, 김정원, 김태중, 문석찬 (총 4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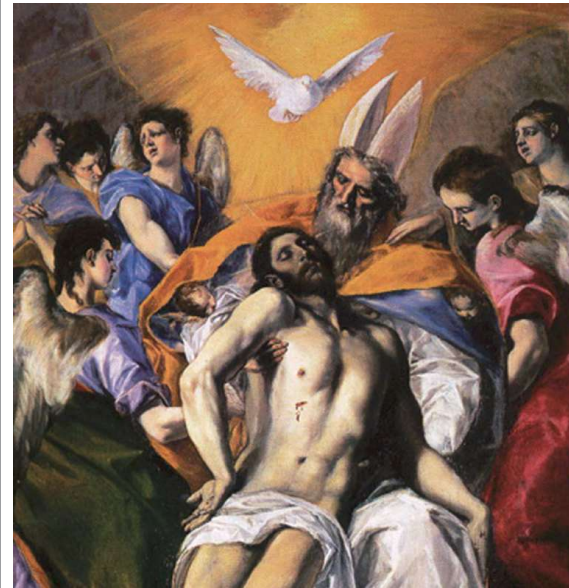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아듣기 힘든 신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 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일치와 지극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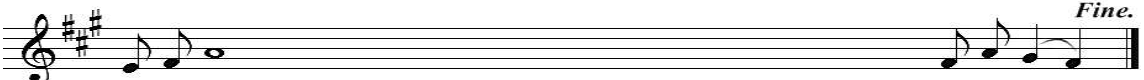
성화해설

삼위일체 (엘그레코 1577-1579,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박물관 소장)

삼위일체는 성령과 성부 성자의 수직적인 구도와 더불어 성부와 성자 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배치한 수평적 구도로 그려졌습니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품에 끌어 안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부의 모습은 슬픔과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 하는 아들이다.”하신 말씀이 연상되며, 성부와 성자와성령의 사랑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잠언의 말씀입니다. 8,22-31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혜는 태어났다.>

화 답 송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2-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쉐 마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으로는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는, 곧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삼위일체 교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네 언어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신비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알 수 없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진리란 말입니다.

왜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믿는 걸까요? 그것은 신앙 역사 안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세 다른 위격으로 계시되고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한 분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자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느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아들 하느님으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느님으로 각각 달리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인간 언어로 풀어 보려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이 하나라는 말은 어떤 인간 논리로도, 말로도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위일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려면 유비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가족 공동체를 예로 들어 삼위일체에 관해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족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별개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가 더욱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분되지만, 세 위격 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완전하기에 결코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계

시다고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넘치는 나머지 밖으로 흘러나와 세상이 창조되고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랑은 모든 만물이 당신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비적 설명만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온전히 설명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아무리 긴밀하게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몸을 지닌 존재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은 원래부터 한 분 하느님이셨고, 영원히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이러니 참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신비 속에 계시 하느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여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적어도 신앙 안에서 계시되고 체험되기 때문에 하느님에 관해 이렇게나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에 삼위일체 하느님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분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가정을 이루며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한마음 한몸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사랑이 넘쳐흘러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 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면서 어려운 교리를 붙들고 이성적으로 씨름하기를 잠시 접어두고 교회 내의 모든 공동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거듭나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보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합시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모든 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으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찾은 하바쿵 예언자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패망이라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살았던 12소예언자의 하나인 하바쿵 예언자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바쿵은 당시 유다 왕국이 처한 역사적 현실을 아파하며 예언활동을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희망하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하느님이 극적으로 개입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바쿵은 하느님께 무엇이라 탄원하였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하바 1,2-4

“하느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이렇게 하바쿵의 예언은 항의조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바쿵이 의심의 인물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과 신뢰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지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르는 유다 백성들도 고통을 받는 모순적인 현실은 하바쿵에게 항상 새로운 의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 하바쿵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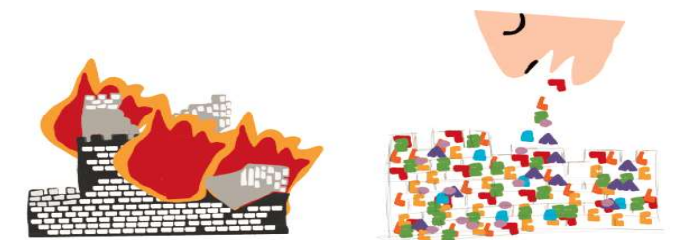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하바 1,5-11

“당신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를 잡아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 하바쿵은 하느님께서 왜 악인들을 그대로보아 넘기고 배신자들을 못본체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그의 질문과 회의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심각하게 고려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바쿵은 인내를 갖고 그 해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느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해답은 하바쿵의 오랜 의문을 말끔히 씻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하바 3,1-19

하느님의 답변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니 기다려야 합니다. 하바쿵은 이스라엘이 절망과 고뇌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충성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조리와 부정이 그들을 삼키려 해도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가 실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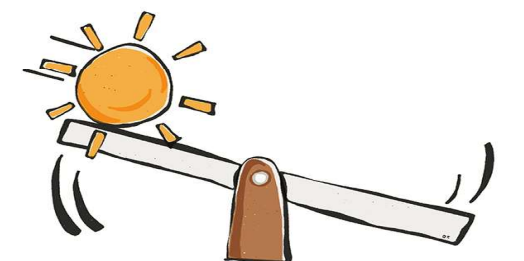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시소



아버지!
당신과 나는 시소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낮아지면
영광을 내게 주시고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면
저는 당신을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는 시소 같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 16,14)

- 임의준 신부